

사회복지통계 생산현황과 발전방향

Ways to Improve Social Welfare Statistics



도세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복지통계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제도와 복지행정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발전과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로 기존의 사회복지통계 영역은 확장과 다양화가 필요하다. 미래 지향적인 사회복지통계는 개인의 삶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새로운 복지문제들이 감지되고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정책친화적인 통계가 되어야 한다. 단일 목적의 조사들 간에는 조사통합을 통하여 정보의 연계성을 유도하고 사회복지통신망, 행정자료의 활용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계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서론

경제발전과 더불어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 국가를 복지국가로 지칭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국가 정책도 국민의 복지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또한 1960, 70년대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생산 활동도 활발하다. 사회복지통계는 사회 현상과 실태를 파악하는 도구로 복지수요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분야 통계작성은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수행 과정 또는 결과로 발생하는 실적 중심의 보고통계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특정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가구 또는 시

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조사통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작성 내용 면에서는 다양한 통계가 생산된다. 즉 사회복지제도 측면에서 사회보험, 기초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측면으로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작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통계는 통계생산 목적과 대상이 다양하고 여러 방식으로 통계자료 수집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통계생산 방법은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통계결과의 상이성으로 통계이용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통계생산 비용에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통계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란 각 국가와 개인 마다

통일된 합의를 얻기가 쉽지 않고 복지가 확대 될수록 사회 현상과 복지 내용을 파악하고 측정 하는 통계의 범위와 종류 또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통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계속 세분화되며 확장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서구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역사가 짧고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정으로 그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 또한 변화가 많다. 사회복지통계는 협의로는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사회보험제도 관련 통계로 볼 수 있으나 선진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보다 넓게 사회복지통계를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간하는 사회지표,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구성하는 통계가 주요 사회복지 통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통계는 기존의 생산관리 되는 통계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통계로 변화하는 복지사회와 관련시켜 볼 때 좀 더 발전된 사회복지통계가 되어야 한다. 즉 복지사회를 측정하고 나아가서 복지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담을 수 있는 통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각종 사회복지 현안에 따른 통계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영역에서 통계의 부족과 통계의 이용적합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현상의 파악과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통계 수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복지통계 생산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의 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복지통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통계 생산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통계 생산현황

통계생산은 한 개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것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작성 과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통계 생산은 대부분 공공적인 기관이 담당하게 되고 통계생산 분야는 정부 정책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계 생산과 관련된 주요 정부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생산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어 통계생산의 체계성과 통계의 범용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사회복지통계 중에서 주기적이며 신뢰성을 갖춘 통계는 통계청 승인 통계라 할 수 있는데 승인 과정에서 자료수집 방법, 조사설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어느 정도 통계의 체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통계이다. 통계청 승인 복지 분야 통계는 35종이며 조사통계 19종 보고통계 16종으로 구성된다(표 1, 2 참조).

통계생산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 22종, 국가보훈처 1종, 통계청 2종, 노동부 3종, 문화체육관광부 1종, 서울특별시 1종, 국민연금공단 2종, 한국노동연구원 1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종, 생명보험협회 1종으로 집계되어 여러 기관에서 통계를 생산한다. 따라서 사회복지통계는 관련 기관들이 필요에 의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복지 분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

표 1. 통계청 승인 복지 분야 조사통계

기관명	통계명	작성주기
보건복지부	기업및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측정	1년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2년
	사회복지서비스산업실태조사	2년
	한국의사회복지지출	1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3년
	노인실태조사	3년
	보육실태조사	5년
	최저생계비계측조사	3년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5년
	장애인실태조사	3년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5년
	통계청	사회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1년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패널조사	2년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년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년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3년

그러나 넓은 사회복지 영역을 감안할 때 전담조직 없이 사회복지통계 전반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사회복지통계의 문제점

사회복지통계에 제기되는 첫 번째 문제점은 지금의 통계가 사회복지 전체를 파악하고 진단하는데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통계가 수록되어 있는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엄밀한 사회복지통계 영역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건복지재정 부문으로 구성된다. 통

계의 세부 내용은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 수, 복지대상자 규모, 복지서비스 지출비용 등 주로 행정적이고 사업결과 통계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수요와 심층적인 실태파악 통계가 부족하다(표 3 참조). 또 다른 사회복지분야 통계지표인 e-나라 지표에는 복지, 보건, 여성/가족, 청소년, 보훈, 노동, 교육 분야를 담고 있어 좀 더 넓은 영역의 사회복지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에서는 보건복지통계연보와 큰 차이가 없고 지표 수 또한 매우 적다(표 4 참조).

두 번째 문제점은 사회복지통계가 분산적이고 부분적인 실태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통

표 2. 통계청 승인 복지 분야 보고통계

기관명	통계명	작성주기
보건복지부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반기
	노인학대현황	월
	보육시설 및 이용자통계	1년
	학대아동보호현황	1년
	장애수당수급자현황	반기
	등록장애인현황	분기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현황보고	반기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1년
	요보호아동현황보고	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1년
	사회복지자원봉사자현황	1년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지급현황
노동부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상황보고	월
	산재보험적용 및 징수현황	월
	산업재해조사	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년

표 3.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복지부문 통계내용

복지영역	세부영역	통계항목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인력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생활시설수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원 - 요보호아동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 고부자수 - 사회복지관수
	장애인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추정, 재가)장애인수 - 재가장애인 경제활동 - 장애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입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편의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출현율 -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보급
	노인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생활시설수 및 생활자 - 노인건강진단 - 취업알선실적

〈표 3〉 계속

복지영역	세부영역	통계항목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 소년소녀가장 - 아동입양관수 및 입양아동수 -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 - 아동양육시설수 및 보호아동 - 아동자립지원시설수 및 보호아동 - 아동보호치료시설수 및 보호아동 - 아동직업훈련시설수 및 보호아동 - 아동전담시설 - 아동상담소수 및 실적 - 아동상담 고민사항 -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 - 요보호아동발생 및 보호
	여성 및 부랑인 복지	- 모자보호 생활시설수 및 생활 - 부랑인 생활시설수 및 생활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급여실적) - 의료급여대상자(사업실적)
	의료급여	- 의료급여대상자(사업실적) - 이재민 구호사업실적
사회보험	공공연금	- 국민연금가입자(수급권자, 총급여비)
	국민연금	- 국민연금가입자 - 국민연금적용사업장수 - 국민연금급여실적 - 국민연금수급자 - 국민연금 기금조성 및 운용
	건강보험	- 건강보험적용인구 - 건강보험 부담액 및 급여액(급여실적) - 건강보험 재정수지
	산재보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사업체수) - 산재보험급여지급건수(액) - 산업재해 발생상황 - 도수율 - 강도율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적용사업장수) - 고용보험 기금운용
보건복지재정	보건복지예산	- 보건복지부 예산 - 사회 및 복지예산 - 사회분야 예산 - 보건의료 예산
	국민경제	- 도시(농가)보건의료비

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4. e-나라지표의 복지부문 지표

중분류	소분류	지 표 명
복지	복지일반(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 - 의료급여 수급 현황 - 보건복지부 예산현황 - 국민영양 현황 - 소득 분배(Gini계수) - 사회복지 지출규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 장래소득에 대한 기대 - 후원(기부)인구
	노인복지(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일자리 및 노후생활 현황 - 노인 취업률 현황 - 노후준비방법
	장애인복지(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현황 - 장애인 시설 및 사업현황 -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
	아동복지(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입양아수 및 입양비율 - 아동안전사고 현황 - 아동급식지원 현황 - 학대아동 보호 건수 - 요보호아동현황
	연금/건강보험(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 - 세대당 건강보험료 부담액 - 공적연금 수급률 - 국민연금 재정현황
	저출산고령화(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계출산율 - 노년부양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계가 분산적인 것은 여러 기관이 사회복지통계를 생산하게 되어 사회복지 전반을 조망하며 체계적으로 통계생산을 기획하지 못하는데 일부 원인이 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부서별로 통

계를 작성하고 있어 부서 간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통계가 생산되는 경향이다. 장애인정책 부서는 장애인 통계를 노인정책 부서는 노인 관련 통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각 부서의 정책적 활

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회복지 전반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부족하다. 장애인,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은 서로 중첩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상호 연계성을 갖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의 분산적이고 부분적인 통계는 정책 수행에 적합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한편 통계청 중심의 사회조사는 안정되고 체계적인 통계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정책 수행과 평가에 적절한 정보 수집이 미흡한 상황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통계생산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통계생산의 비효율은 통계자료 수집의 중복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특정 부문에 통계생산 자원이 과소비되고 응답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새로 필요한 통계생산 여지를 감소시킨다. 사회복지분야 조사통계는 대부분 가구대상 조사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복지대상별 개별조사로 이루어져 자료수집 비용을 증가시키며 조사방법 및 조사문항이 표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회복지분야 조사통계에서 분산적이고 중복적인 통계생산은 패널 조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복지대상자별 특정 목적으로 패널을 구축하고 있어 패널자료가 범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표 5 참조).

패널조사는 시계열적인 관찰을 목적으로 조사대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조사이다. 따라

표 5. 사회복지 관련 주요 패널조사

패널조사명	운영기관(관련정부부처)	조사시작 시기	조사 단위	표본 규모	승인여부(기간)
서울시복지 패널조사	서울복지재단(서울특별시)	2009	가구	서울시 3,000가구	승인(2009)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2008	개인	전국 여자 2,361명 남자 1,000명	승인(2008)
청년 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	2001 (2007개편)	개인(청소년)	전국 10,000명 (만15~29세)	승인(2007)
여성가족 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2007	가구	전국 8,500 가구	승인(2007)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노동부)	2008	개인(장애인)	전국 5,000 가구	승인(2007)
한국복지 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6	개인	전국 7,000 가구	승인(2006)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2006	개인(고령자)	전국 10,000명 (45세 이상)	승인(2006)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2005	개인(고령자)	전국 5,000 가구 (50세 이상)	승인(2005)
한국노동 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1998	개인	전국 6,500가구	승인(1998)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중2:2003 초4:2004	개인(청소년)	중 2 3,000명 초 4 3,000명 (학생, 학부모)	미승인
한국아동 패널	육아정책개발센터(여성가족부)	2008	가구	전국 1,800 가구	미승인

서 패널로 설정된 조사대상 관리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패널조사의 급격한 증가는 관련 대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시계열적인 분석의 필요성으로 조사가 설계되었다. 그러나 패널조사 목적과 장점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횡단면적인 분석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표본 수 확대가 필요한데 조사 관리와 예산 증가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복지서비스대상의 횡단면적 조사 또한 특정 목적의 통계생산에 국한하고 있어 연계성을 갖는 사회복지통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사회복지통계 내용이 개인의 삶의 질 파악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통계에는 일부 건강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지표들이 있지만, 삶의 만족도나 불안감, 보육비나 교육비 부담 정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노후 생활에 대한 다양한 만족도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주관적 인식 지표들이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개인 삶의 주관적 질(quality)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며, 위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불확실성의 일상화'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회라면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목적은 개인에게 주는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개인 삶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 인식은 사회복지통계에서 중요하다¹⁾.

다섯 번째로 통계의 정책 친화성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계가 사회복지제도 중심으로 구성되고 내용 면에서 수급자의 수 및 급여의 양 등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그리고 독거노인의 복지문제나 급증하는 자살에 대한 이슈들 등 현재 정책적 주의를 요하는 지표들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통계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틀을 가지고 원인들을 제시해 주어야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고, 혹은 현재의 대응이 적절한지가 자연스럽게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분리하고 동시에 연결시켜 보여주면서 얼마나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함의를 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통계생산 체계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3. 사회복지통계의 발전방향

사회복지통계는 변화하는 현실을 잘 보여 주고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통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통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통계는 현재보다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개인과 가족 그리고 복지대상자의 삶이 측정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기존의 전통적 사회보장정책에 더하여 교육, 주택, 고용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즉 고용, 주거, 교육

1) 최영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미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세미나, 2011년 3월 28일.

분야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사회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사회복지통계 영역에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래 지향적인 사회복지통계에 대하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복지 선진국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의 복지 지표 체계는 건강한

생활, 자치와 참여, 사회적 연대로 나누어 개인의 삶 중심으로 복지 지표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표 6 참조).

우리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보육이나 교육 복지에 관련된 항목 그리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다양한 지표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통계 영역은 보

표 6. 호주 복지 지표 체계와 개별 지표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건강한 생활	대기, 수질과 식품	- 도시대기질 - 음용수 접근 - 1일 과일과 야채 섭취 - 비만율	자치와 참여	고용과 노동참가	- 고용과 노동참가 - 고용조건 - 연령/성별 고용과 노동참가 차이
	안식처와 주택	- 주택보유 - 주거의 적절성 - 노숙자		운송과 의사소통	- 운송 - 의사소통 (전화보유, 인터넷접근)
	건강	- 평균수명 - 불구의 기대여명 - 영아사망률 - 정신건강 - 신체활동		여가와 오락	- 시간이용 - 오락과 여가활동 - 오락과 고용
	안전	- 안전감 - 범죄 - 상해	가족형성과 기능	- 가족형성(결혼상태) - 가족유형 - 연령별 이혼율 - 가족기능(가정폭력) - 아동유기	
자치와 참여	교육과 지식	- 교육연한 - 교육성취도 - 학동의 문자해독율 - 인구 문자해독율	사회적 연대	사회적 지원망	- 가족/친지와 접촉 - 사회적 격리(소외감)
	경제자원과 보장	- 소득과 소득분배 - 최저생계이하 소득가구 비율 - 경제적 압박과 고통 - 부와 부의 분배		신뢰	- 개인간 신뢰 - 사회적 신뢰 - 시민으로서 신뢰
				지역사회와 사회참여	- 지역사회 참여 - 시민으로서 참여

자료: 이승욱 외(2006). 보건복지통계 현실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P180 재인용.

건복지부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산재된 통계들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수집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사회복지통계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정책 친화적이어야 한다. 통계를 통하여 개인 또는 복지 대상자가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떻게 변화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복지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가능하는 통계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삶과 관련된 관심영역은 건강, 가족, 교육, 직업, 주택, 범죄, 인정, 문화 등 많은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심영역이 인구집단과 연계될 때 세분화되고 다양한 사회복지통계가 생산된다. 여기서 인구집단은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 아동, 여성 이민자 등 여러 속성의 집단으로 분리될 수 있다. 인구집단과 관심영역이 연결될 때 단순하고 개별적인 통계보다 더욱 정책친화적인 통계로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복지대상자와 연계될 때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통계자료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사회복지통계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통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복지통계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통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계생산 기획에서 연계성을 갖는 통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조사통계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통계가 생산되도록 조사항목이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구소득조사에서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복지서비스 관련 항목들이 함께 측정될 수 있도록 조사가 설계되어야 한다. 보고통계는 보고서식 항목의 추가와 개편, DB구축, 정보 연계를 통하여 세분화되고 정책친화적인 통계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최

근 기초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업무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책친화적인 통계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보고통계 생산에서 안정적인 통신망이 확보되어 통계생산 방법과 내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조사통계의 경우는 기존 단일 목적의 조사들 간에 조사통합을 통하여 내용의 단편성을 해소하고 각 부문이 연계된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생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 통계생산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복지전달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별 복지 편차가 줄어들기 보다는 더욱 커지는 상황으로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분야의 복지가 취약하고 또한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군구별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지역별 사회복지통계생산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4. 맺음말

사회복지통계는 제도와 행정 중심 통계에서 개인의 삶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통계청은 주기적인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을 통하여 사회복지관련 지표체계를 구

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통계청만의 업무라 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통계의 직접적인 이용자이며 실제적인 정책수행 부서이기 때문이다. 상호 협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시되는 사회복지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변화하므로 사회복지통계도 변화하는 방향으로 영역의 확대와 개선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방향에서의 복지를 측정하고 정책친화적인 통계로 사회복지정책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국제 사회에서 공통적인 사회복지지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국제간 비교 가능한 통계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업별 정책수행과 관련된 통계생산 활동은 사업 간의 연계성과 시계열적 통계제공을 통하여 통계활용의 범용성을 높여야 하고 유사한 통계조사는 조정을 통하여 통계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건복지**